

이교도에 대처하는 우리의 자세 ①

기독교 전도사들의 물음에 어떻게 답해야 할까?

2005.09.05 / [향산 기자]

거리를 걸다가, 혹은 지하철을 타고 가다가, 어떤 때에는 집에서 쉬고 있는 동안에 우리 불자들에게 개신교 선교사들이 다가와 '예수님을 믿으라'는 권유 아닌 권유에 어떻게 대처하십니까. 공공장소에서 '예수천국 불신지옥'을 목이 터져라 외치는 몰지각한 사람들에게 대해 어떤 생각을 갖게 됩니까. 몰지각한 이들을 제외하더라도 '나름의 종교적 신념'을 갖고 선교를 위해 접근해오는 선교사들을 만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불교신자이니 다른 사람에게 가 봐라'라며 애써 피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최근 남아시아의 불교국가인 스리랑카에도 개신교 선교사들의 '극성스런' 활동이 이어지면서 스리랑카 불교계가 이들의 활동을 제한해달라는 요청을 정부에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불교신도가 개신교 선교사를 만났을 때 그들의 논리에 대해 어떻게 대답해야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글은 기독교 선교사들이 불교를 공격하려는 의도로 제기하는 물음에 어떻게 답해야 할지에 대해 스리랑카의 A. L. de Silva가 항목별로 제시한 모범답안입니다. Singapore의 Panna Youth Center[般若青年會]에서 인터넷으로 서비스하는 Dhamma Times 2003년 3월 19일자에 처음 발표된 후 지금까지 스리랑카에서 큰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일부 우리나라 상황과 다른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개신교도의 논리에 보다 적극적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자는 취지에서 3회에 걸쳐 나누어 연재합니다. - 편집자 주



◇ 기독교 전도사의 질문에 여유롭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답할수 있는 불자가 되어야하겠습니다.

기독교 전도사들의 물음에 어떻게 답해야 할까?

A. L. de Silva

개신교 신도들은 자신의 신앙을 확산시키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불교도들을 혼란스럽게 하거나 용기를 잃게 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불교도들에게 종종 질문을 던집니다.

이 질문과 코멘트들 중 몇 가지를 살펴보고 불교의 입장에서 효과적인 답을 제시하려고 합니다.

질문 1. “당신은 하느님을 믿지 않으므로, 세상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설명할 수 없다.”

‘세상 만물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에 대해 기독교에서 나름의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 설명이 정확할까요? 그것을 꼼꼼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기독교 『성경(聖經)』에서는 “하느님이 옛세 동안에 만물을 창조하고 이레째 되는 날에는 휴식을 취하셨다”고 말합니다. 그럴듯해 보이는 이 이야기는 신화에 불과하고, ‘신들이 엄청난 양의 우유를 휘저어서 만물을 창조하였다’고 하는 힌두(Hindu) 신화나 ‘세상[the universe]은 우주의 광대무변한 알[a cosmic egg]에서 부화되어 생겨났다’고 하는 고전적인 믿음보다 나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창조 신화 중 일부는 어처구니없는 웃음거리인 것이 분명합니다. 예를 들면, “첫째 날에 하느님이 빛과 어둠을 창조하였지만, 넷째 날에 태양을 창조하였다(『창세기』 1:15-16)”고 합니다. 하지만 태양이 없이 어떻게 낮과 밤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 창조 신화는 또한 ‘세상이 어떻게 시작되었고 생명이 어떻게 진화되었는지’ 밝혀내온 근대 과학과도 모순을 일으킵니다. 세계의 솔하게 많은 대학들 중 어느 곳에도,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창조 신화를 가르치는 천문학과나 생태학과는 하나도 없습니다. 따라서 ‘만물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에 대해 (대개의 종교에서 하듯이) 기독교에서 나름대로 설명을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은 그저 신화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불교에서는 ‘만물이 어떻게 시작되었다’고 말을 할까요? 불교에서는 이 주제에 관해 거의 언급을 하지 않는데, 이는 확실한 이유가 있습니다. 불교의 목표는 ‘지혜와 자비’를 계발하고 그것에 의해 열반(Nirvana)을 성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아는 것은, 이 과업을 이룩하는 데에 단 하나도 기여할 수 없습니다.

한 번은 어떤 사람이 부처님께 ‘세상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말씀해달라고 하였습니다. 부처님께서서는 그에게 “그대는 독화살을 맞고서, 의사가 와서 그것을 뽑으려고 할 때에 ‘기다려요! 화살을 뽑기 전에 그것을 쏜 사람의 이름, 출신 부족과 그가 태어난 마을을 알고 싶어요. 그 사람이 가진 활이 무슨 나무로 만들어졌는지, 화살 꼬트머리에는 어떤 새 깃털이 달려 있는지, 그 화살이 얼마나 긴지 등등에 대해 알고 싶어요.’라고 말하는 사람과 같군요. 이 물음 모두에 대해 답을 듣기 전에 그 사람은 죽게 될 것이예요. 내가 할 일은 그대가 스스로에게서 고통이라는 화살을 뽑아내도록 도와주는 일이에요.”(『맛지마 니까야』 No. 63 ; 『中阿含經』 「箭喻經」)

불교에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실질적인 문제들을 풀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데에 집중하지, 쓸데없는 공리공론이나 일삼으라고 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만약 어떤 불교도든지 ‘이 세상이 언제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알고자 한다면, 과학자에게 물어보면 될 것입니다.

질문 2. “불교에서는 ‘당신은 개미 한 마리도 죽일 수 없습니다’라고 말하기 때문에 비실제적이다.”

‘비실제적’이라고 하는 비판에 대해 불교를 옹호하기에 앞서, 먼저 ‘기독교는 실제적인지’ 살

퍼봅시다. 예수에 따르면, “만약 누군가가 한쪽 빵을 때리면 다른 쪽 빵을 돌려 내밀어 그곳도 때리게 해야 하고”(『마태복음』 5:25), “누군가 우리 바지를 훔쳐간 것을 알았다면 밖으로 나가 그 도둑에게 뉘도리를 주어야 하며”(『마태복음』 5:40), “만약 우리 스스로 그 도둑질에 저항할 수 없다면, 우리 양손을 잘라야 한다”(『마태복음』 5:30)고 합니다. 기독교도들은 심중팔구 오히려 그것들이 매력적이라고 할지 몰라도, 우리는 이 모든 가르침들을 ‘비실제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들이 옳을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가 우리를 공격할 때 다른 쪽 빵을 돌려 내민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분노를 통제하여야 하는데, 이렇게 함으로서 인내심, 겸손함, 보복하지 않는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을 계발하도록 도와줍니다. 만약 단 한 차례도 도전을 받지 않는다면 우리는 절대로 성장하지 못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서는 우리들에게 일체의 생명, 심지어 하찮은 미물에게도 존경심을 가지라고 하셨습니다.

‘다른 쪽 빵을 돌려 내미는 것’, 이 일이 항상 쉽지는 않습니다. 일부의 사람들처럼, 개미와 같은 미물들은 ‘짜증나게 하는 불편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살생하지 말라’는 계를 받아 지니고 그것을 실천하고자 한다면, 우리들은 인내심, 겸손함, 사랑 등등을 계발하라고 도전을 받습니다. 따라서 우리들에게 일체 생명을 존경하라고 요구하는 점에 있어서, 불교는 결코 기독교보다 비실제적이지 않습니다.

질문 3. “예수님께서서는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가르치시는 데 반해 불교는 ‘냉정해지고 집착하지 말라’고 권장합니다.’

이것은 진실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서는 우리가 일체 중생에게 따뜻한 사랑을 계발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머니가 심지어 자신의 생명을 희생하면서까지 외자식을 보호하려고 하는 것과 똑같이, 일체 중생에게 조건 없는 사랑을 가꾸어야 한다. (『수타니파타』 제 150계송)

기독교에서와 마찬가지로 불교에서도 사랑은 중요하며, 기독교에서만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독교도들이 하는 사랑의 실천을 망쳐놓는 무엇인가가 있습니다. “우리들만 사랑한다. 우리들의 사랑이 다른 사람들의 사랑보다 우월하다.”고 하며 큰 소리로 우겨대고 사랑을 실천하려는 다른 사람들의 노력을 헐뜯고 비웃는 것이 그 사람들을 철저히 불쾌하게 비쳐지도록 만듭니다.

일부 기독교도들은 비열하고 질투심이 많아서, 그것에 ‘예수님께 의해 이루어졌다’고 쓰여 있지 않는 한 ‘사랑’처럼 아름다운 성품에 대해서도 칭찬하거나 고마워할 수가 없습니다. <계속>

[‘아서 드 실바’는 스리랑카에서 포르투갈 계 후손으로 태어났다. 서양 최초의 비구니 스님 아야 케마가 스리랑카에서 ‘비구니의 섬’을 세우고 운영하는 데 큰 도움을 주었으며 1988년 세연을 다 하였다. (도서출판 장승에서 나온 아야 케마 자서전 <<이 생명 다 바쳐서>>에 실바에 대한 언급이 많이 나온다.)]

< 2005.09.05 17:10 / 조회수:452 >